

전북도, 동남아 관광시장 정조준

베트남 호치민시 관광설명회 열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홍보·상담

전북도는 베트남 탁락성과 우호교류 협약체결 방문길 첫날인 21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주요여행사 및 홍보관계자 50여명을 초청,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열고 '가장 한국적인 전북'을 베트남인들에게 소개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은 한류문화를 즐기는 층이 두터워, 전라북도는 베트남 관광시장을 주요 관광시장으로 주목하고 이번 전북관광설명회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2017년 전북방문의 해에 이어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으로 지정한 전라북도 관광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관광시장에서 전라북도 관광브랜드 제고와 관광객 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관광설명회에서 겨

울 스키와 꽃, 단풍 축제 등을 중심으로 한 계절 관광상품과 한복·한지·한식 체험과 관소리와 사물놀이 등 전통공연 즐기기 등 전라북도 다채로운 관광상품을 소개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별관광객을 전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라북도 외국인전용 셔틀버스 운행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여행사를 위한 관광설명회, 상담회,

세일즈 콜 실시와 함께 가족단위나 친구 등 개별관광객을 위한 홍보관계자를 대상으로 B2B(Business-to-Business, 기업 대 기업)와 B2C(Business-to-Customer, 기업 대 다수 소비자)를 병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베트남은 동남아 한류의 진원지라고 할 정도로 한류 문화에 관심이 높은 나라이며,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한국의 전통과 맛을 즐길 수 있는 한국 체험 1번지 전라북도를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하늘 위로 평창 동계올림픽 D-50을 앞둔 21일 오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상공 위로 대한민국공군 블랙이글스가 훈련 비행을 하고 있다. '하나된 열정' (Passion Connected)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 평창, 강릉, 정선에서 펼쳐진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온 힘

사업비 50억원 투입... 도내 11개 하천 352km 정비

전북도 건설교통국은 2018년, 도내 11개 국가하천 352km의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국비 50억원을 투입,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에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49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국가하천의 친수공간과 안전시설을 정비했다.

국가하천은 도내에는 장수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등 총 11개가 있으며, 관리연장은 352km, 총 유역면적은 8,069km로 남한면적(99,720

km)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변생태공원 등의 친수시설과 제방정비, 배수시설 등 친수 시설을 관리해 재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전북도민 여가문화 확산으로 수변공간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하천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휴식 공간으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 성과공유회 열려

특구육성사업 지원받은 50여개사 참석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21일부터 이틀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특구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50여개사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전북특구 성과공유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북특구 지정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육성사업의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2018년도 특구육성사업 시행에 앞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신규 설립된 연구소기업(유)코이도 등 9개사 및 첨단기술기업(주)울리스 등 3개사의 지정서 수

여식 및 전북특구 지정 2년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전북특구 주요성과를 보면 지정 2년동안 190개사 280건을 지원하여 12월 현재 기준, ▲연구소기업 51개 ▲첨단기술기업 7개 ▲신규 고용창출 391명 ▲투자유치 40건, 투자금액 233억 등의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특구본부 박은일 본부장은 "내년에는 특구가 규제프리존이 시행되는 등 신기술 및 신산업의 전진지가 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생명 지키기'

임실군 국비 135억원 확보... 전년대비 35억원 증액

임실군이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 135억원을 확보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임실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에 재해예방사업비를 대거 확보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비는 철저한 중앙부처 대응과 적극적인 공모사업에 나선 결과, 올해보다 35억원이 증액된 총 135억원이 반영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역 정비사업 2개 지구에 40억원을 비롯해 소하천 정비사업 7개 지구에 63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9억원, 소규모재해예방사업 20억원, 예·경보시스템정비 3억원 등이 집중 투자된다.

군은 특히 재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진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실시절차와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관리체제를 구축했다.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곳곳에 산재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상습적인 수해 피해를 미연에 예방,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심민군수는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내년초부터 재해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서둘러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도 자치행정국 '사랑의김장나누기' 구슬땀

전북도청 자치행정국 직원 일동은 21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했다. 김장 나누기 행사에는 김양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김양민 자치행정국장은 "김장철이 지나간 했지만 연말을 맞아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김치를 담가 나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직원들과 합심해 김장 나누기 행사

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정성들여 담은 김장 김치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힘들 수 밖에 없는데, 오늘 행사에 참여하여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형식 탈피한 사회적 대화 체제 활성화"

문 대통령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서 발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강조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관련사진 9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과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갖고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가동하겠다는 '사회적 대화 체제'와 관련해 "모든 이해 관계

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다"면서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마포리발원에서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희망 2018 나눔캠페인 기부자명단

◆ 김제시 교열동	◆ 고창군 부안면
▷ 조석봉님 1,000,000원	▷ 용산마을 380,000원
▷ 갈촌마을 80,000원	▷ 고잔마을 200,000원
▷ 갈공마을 400,000원	▷ 사창마을 180,000원
▷ 월봉마을 150,000원	▷ 주촌마을 130,000원
▷ 가작마을 180,000원	*** 계 890,000원
*** 계 1,810,000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